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수학여행기간 : 2025.5.14.~2025.5.16

<학생>

구분	내 용
활동 전	-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에 참가하여 대응 요령을 충분히 숙지한다. - 과도한 현금, 귀중품, 휴대금지물품(총기, 주류, 담배, 도박도구 등)을 소지하지 않으며, 항공기 탑승 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반드시 확인한다. - 인솔 및 지도교사의 연락처 및 응급구조번호를 숙지한다.
활동 중	-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 - 인솔자 및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 사고 발생 시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에 따른다. -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차량운행 시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탑승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바르게 착용하고, 차량 밖으로 손, 얼굴 등을 내밀지 않는다. -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숙소 내 기물을 훼손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승·하차 시 집합 시간을 반드시 지킨다. -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활동 후	- 새롭게 형성된 인간관계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체험학습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행일기, 포트폴리오 등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활동 내용을 되새겨 보도록 한다.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 차량 내 응급조치 : 멀미

1. 승차 전 멀미 예방약 복용하도록 지도
2. 앞자리에 앉도록 함 (뒷자리가 상대적으로 진동이 심함), 멀미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
3. 창문 밖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함

【붙이는 멀미약 사용법】

- ① 사용 전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고, 최소 승차 4시간 전에 미리 붙인다.
 - ② 사용 후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사용한 손으로 눈을 만지면 동공 확대 등 부작용 발생)
 - ③ 효과 지속시간이 72시간이므로, 그 전에 다시 붙이지 않는다.
 - ④ 갈증, 안통과 동공확대, 오심과 구토, 어지럼증, 방향감각 상실, 기억력 감퇴, 환각과 착란 등의 부작용 증상 나타나면 즉시 떼어 버리고, 물을 충분히 마신 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1시간 전에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나며, 지속시간이 짧은 대신 부작용이 덜하므로 먹는 멀미약을 권장한다.

◎ 차량 내 응급조치 : **차내 화재 발생**

1. 인솔자는 학생들을 불길을 피해 질서 있게 신속히 하차시키고 도로 밖 안전지대로 대피
2. 탈출구가 막힐 경우 비상 탈출용 망치(형광용)로 유리창의 모서리를 가격하여 깨고 대피할 것
3. 대피 후 학생 인원 점검을 통해 대피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지 확인
4.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가 가능한 지 판단하고, 자체 진화 불가 판단되면 곧 119로 신고

【소화기 사용 요령】

- ①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 ② 불이 난 곳을 향해 호스를 빼 들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는다.
- ③ 불길 바깥에서 안쪽으로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뿌린다.

◎ 차량 내 응급조치

[추돌 사고]

1.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다친 학생이 있는지 확인
2. 목 또는 허리 손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
3.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함

[전복 및 추락]

1. 개방된 모든 통로로 신속히 대피
2. 탈출구가 없으면 비상 탈출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통로 확보
3.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
4. 대피 후 학생 인원 점검을 통해 대피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지 확인

[차량이 물에 빠졌을 때]

1. 학생들이 이동해야 할 방향을 판단하여 알림
2. 안전띠를 풀고 신발과 옷을 벗어 신속히 탈출
3.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침착하게 기다리다 차량 안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출입문을 열고 탈출
4. 대피 후 학생 인원 점검을 통해 대피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지 확인

◎ 선박 내 응급조치

[선박 안전수칙]

1. 구명조끼 착용법을 숙지하고 선내 탑승 후 구명조끼 보관 위치 확인
2. 구명보트가 있는 위치 확인
3.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 출입 금지 장소에 승무원의 허락 없이는 출입 금지

[비상 시 행동요령]

1. 충돌사고나 좌초, 전복이나 침수 시 사고 발생을 비상벨이나 큰 소리로 알림
2. 선내 방송이나 승무원 안내에 따라 움직이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확보하고 구조선을 기다림
3. 배에서 쿵 소리나 폭발음이 들리고 배에 충격이 가해지는 등의 사고 시에는 가능한 선실에서 벗어나 탈출이 쉬운 갑판으로 대피
4. 비상구가 열리지 않을 때는 가까운 곳에 비치된 도끼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탈출
5. 배가 침몰 시 성급하게 바다로 뛰어들면 거대한 소용돌이(와류현상)가 일어나 깊은 곳으로 잠길 수 있으므로 유의
6. 배가 기우는 반대 방향의 제일 높은 쪽에 있는 것이 유리함
7. 탈출을 위해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구명조끼를 입고 신발을 벗음

◎ 식사 및 숙소 내 응급조치

[식중독 관련]

1. 구토 및 설사 증세가 나아질 때까지 음식 대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 예방
2. 이온 음료나 물 1L에 설탕 4티스푼과 소금 1티스푼을 섞어 충분히 마시도록 함
3.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함

【병원으로 가야 하는 복통】

- 4시간 이상 지속하는 심한 복통
- 어지러움, 졸림, 혼미한 느낌
- 구토, 열을 동반하는 복통
-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복통
- 복부가 팽만하거나 누르면 아픈 복통

[코피]

1.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콧망울을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10분 이상 압박하여 지혈
2. 코뼈 부위에 냉찜질
3. 입으로 호흡하게 하며, 코피가 목으로 넘어가면 뱉어내도록 함
4. 타박상으로 인한 경우, 30분 이상 지혈되지 않으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함

[추락사고]

1. 의식은 있으나 머리 충격이 의심되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즉시 119에 신고
2. 대부분 골절 등 손상이 있으므로 팔, 다리 등을 무리하여 움직이거나 일어서지 않도록 하고, 천천히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함
3. 환자의 의식, 호흡, 손상 정도 등을 관찰하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화상(열화상)]

1. 화상(열화상)의 응급 처치

- 화상 부위를 찬물에 20분 이상 담가 열기를 식힌다.
- 물집은 터트리지 않고 연고나 기름 등도 바르지 않는다.
- 시계, 반지, 목걸이 등의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벗긴다.
- 화상 부위에 깨끗한 거즈를 대로 붓대로 감아 준다.

【병원으로 가야 하는 화상】

- 화상의 부위가 넓은 경우
- 화상에 의한 통증이 계속될 경우
- 화약 약품이나 전기 화상, 흡입 화상
- 화상 부위가 얼굴, 손, 발, 관절, 생식기관인 경우

2. 햇빛(일광) 화상은 (1도 화상과 같이) 찬물이나 찬 물수건으로 열을 충분히 식히고, 화상연고를 바름

◎ 지진 발생 시 응급조치

[지진 발생 중]

1.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2.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물 내 안전한 장소에 함께 머무른다.
3. 고층빌딩 안에 있는 경우, 창문으로부터 떨어진 견고한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4. 문틀이 틀어져 문이 안 열리게 되어 방안에 갇힌 사례가 있으므로 빨리 문을 열어 둔다.
5. 번화가에서는 떨어지는 물체가 위험하므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떨어진 장소로 대피한다.
6.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출입구로 몰려가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입는다.

7.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즉시 각 층의 버튼을 전부 눌러 정지시킨 후 대피한다.
8.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를 검색하거나 방송을 청취하여 지진 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한다.
9.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휴대전화로 119 신고를 하거나 인터폰으로 구조요청을 한 후 구조를 기다린다.
10. 거리에서 진동이 오면 자세를 낮추고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 건물·가로등·전선에 접근하지 않는다.
11. 대부분의 부상은 건물을 출입할 때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것이므로,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위치한 장소에 그대로 머무른다.
12. 건물 내부에서는 파손되거나 넘어지기 쉬운 물건 주위를 피하고 견고한 탁자 밑이나 화장실(욕실)로 대피한다. 대피할 때는 유리 파편 등을 조심한다.

[지진이 잠시 멈춘 상태]

1. 긴급사태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듣는다.
2. 유리 파편 등에 대비하여 견고한 신발을 신는다.
3. 의식을 잃은 부상자에게는 물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소방관, 경찰관, 구조요원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는 피해지역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5. 지진에 의하여 취약해진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여진에 철저히 대비한다.
6. 담요를 이용하여 환자의 체온을 유지시키되, 환자의 체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부상자의 호흡이나 심장이 멈춘 경우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심폐소생술(인공호흡)을 실시한다.
8. 거리로 나가야만 한다면, 떨어진 전선,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건물·축대·교량·도로로부터 먼 곳으로 대피한다.
9.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불(양초, 성냥, 라이터)은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10.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부상자가 위치한 곳이 위험하지 않다면 부상자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하고, 만약 부상자를 옮겨야만 한다면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와 부상 부위를 고정한 후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지진이 끝난 후]

1. 여진에 대비하며 부상자를 확인하고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2.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재난 방송을 통해 지진 상황을 확인한다.
3. 유리 조각이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물 등을 조심하며 화재 및 가스누출을 확인한다.

◎ 기타 각종 상황별 응급조치

[외상 응급처치]

1.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고, 출혈 부위를 압박하거나 지혈
2. 상처를 소독하고 드레싱
3. 상처가 깊은 경우 병원 이송
4. 찢린 상처의 경우 알게 박히면 제거 후 지혈, 소독한다. 깊게 박히면 수건 등으로 고정 후 병원 이송

[벌에 쏘인 경우]

1. 얼음이나 찬물로 찜질
2.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3. 카드 등으로 긁어서 벌침 제거
4.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도록 함

[뱀에 물린 경우]

1. 119에 신고

2.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킴
3. 압박대 매기, 칼로 찢기, 입으로 빨아내기, 얼음찜질 등은 하지 않도록 함
4. 환자를 똑바로 눕혀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시계, 벨트 등 조이는 부분을 풀어줌
5. 2~3cm 넓이의 천으로 물린 부위에서 심장 쪽으로 가까운 5~10cm의 위치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묶어줌

[일사병]

1. 소금물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하도록 함
2. 시원한 곳으로 옮겨 눕히고, 겉옷은 벗도록 함
3. 찬 물수건으로 몸을 적시거나 부채질을 하도록 함
4.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20~30cm) 하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해야 함

[경련, 발작]

1. 경련 시 입에 어떤 물질도 넣으면 안 됨
2. 질식 예방을 위해 머리와 몸을 옆으로 돌려줌
3. 환자 주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치워야 함
4. 물, 음료 등을 마시지 않도록 하고, 옷은 느슨하게 풀어줌
5. 경련 중 눈과 손발의 움직임, 지속 시간 등을 자세히 관찰
6. 경련이 끝난 후 다시 경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

[눈 손상]

1. 눈에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하지 말고 종이컵 등으로 두 눈을 보호하고 압박되지 않도록 하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

2.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절대로 눈을 비비지 말고,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그고 눈을 깜박거리 이물질이 나오도록 함
3. 눈을 다친 경우, 머리를 올린 자세로 눈을 감고 안정하도록 하며, 안통, 시야 흐릿함 등의 이상 증상이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함